



2014 서울인쇄대상 대상 수상한 (주)금강프린텍

인쇄 · 후가공기법 역 제안 “땀의 가치 인정받아 기쁘다”

(주)금강프린텍(대표이사 이광재)이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에서 ‘CJ 사사’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CJ전통과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책 표면에는 거친 패브릭 원단을 적용, 질감과 입체감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금강프린텍을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내실경영·직원복지에 중점

1997년 설립된 (주)금강프린텍은 책자 및 상업인쇄 전문업체다. 주요 거래처는 삼화제지, 한솔뮤지엄, KB생명, 우리은행을 비롯해 안그래픽스 등의 다수 디자인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2014 서울인쇄대상 대상을 받은 'CJ 사사'도 안그래픽스와 함께 한 인쇄물이다.

설립 당시 7명과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80%가 창업멤버로 약 20년 동안 함께하고 있다.

이광재 대표는 “나와 직원들은 동고동락해 온 가족”이라며, “우리 회사는 사세확장보다는 내실 경영과 직원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창업당시 멤버 80%가 지금도 근무할 정도로 가족같은 분위기를 자랑한다. 대표든 직원이든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함께 퇴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6년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도입하지 않았던 격주 토요일 휴무를 전격 도입해 인쇄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긴 샌드위치데이에도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이 있을 경우에는 2팀중 1팀만 출근해 작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직원의 초중고 자녀에게는 교복을,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품질 향상 위해 G7 마스터인증 획득

금강프린텍은 1997년 창업 당시 고모리 국2절 4색 중고기계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고모리 T3절 5색기, 2010년 고모리 2절5색기를 각각 도입했다. 특히 2010년 고모리 LS-432를 도입하면서 G7 마스터인증서를 받는 등 인쇄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또한 기술향상과 의식향상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 국내에서 열리는 고모리 스쿨에 반드시 참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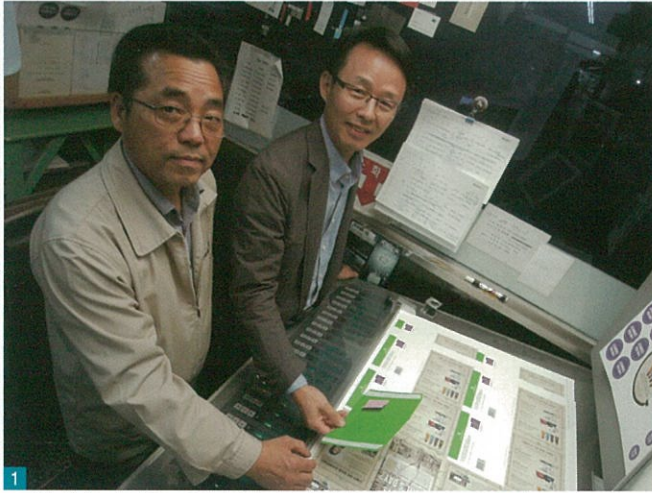
이광재 대표는 “인쇄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품질관리는 대표나 직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고모리 스쿨에 참가하는 한편, 서울인쇄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G7인증을 획득한 것이 금강프린텍의 인쇄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으며, 외부적으로도 신입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실질적으로도 고품질 인쇄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쇄 완벽하면 영업은 필요없다!

이광재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인쇄물로 2006년 제작한 하얏트호텔 룸서비스용 안내책자와 바인더커버를 꼽았다. 이광재 대표는 “하얏트호텔 룸서비스용 안내책자와 바인더커버는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생생하다. 처음 작업을 수주했을 때에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기에 늘상 하던대로 작업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정말 너무나 까다로웠다. 실밥이며 땀수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작업은 약 20회 정도 진행됐다. 당시 수차례의 보완요구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일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지 않았다. 20번에서 끝났지만 100번이라도 할 각오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 일은 이광재 대표를 비롯한 금강프린텍 직원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바인더 커버의 땀수까지 체크하는 등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완벽한 일처리라든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완벽한 인쇄작업을 한다면 영업도 필요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제9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CJ 사사'



1. 이광재 대표가 박용구 총괄이사와 인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 '제9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 에서 이광재 대표가 대상을 수상했다.
3. (주)금강프린텍에서 제작한 다양한 인쇄물들



고객과의 시간약속 반드시 지킨다!

금강프린텍은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을 이어가고 있다. 이광재 대표는 “우리가 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인쇄 시장의 확대와 다품종 소량 인쇄시장의 변화로 인해 고객들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인쇄물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과의 시간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전에는 인쇄인들이 무조건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고객이 요구한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고객과의 약속은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에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소한 일 하나가 불러온 행운

작지만 큰 회사를 꿈꾸는 (주)금강프린텍도 창업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1997년 거래처의 부도로 창립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행운은 금강프린텍에게 살며시 다가왔다. 전부터 알던 코카콜라 담당자가 오후 7시쯤 급하게 스티커 인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었다. 이광재 대표는 “이때 코카콜라로부터 스티커 인쇄 200장 주문을 받았다. 코카콜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전에 거래하던 인쇄사에는 스티커 칼이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마침 우리 회사에는 스티커용지도 있어서 200장을 인쇄한 뒤 사무용 칼로 하나하

나 칼선을 만들어서 다음날 납품했다. 이를 계기로 코카콜라 작업을 맡게 됐다”고 회상했다. 당시 코카콜라는 매달 전국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의 인쇄물량을 작업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때에는 월드컵프로젝트를 진행해 20대의 트럭에 인쇄물을 가득 실어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광재 대표는 “사소한 일이 계기가 돼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도 성심을 다해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력이 불러온 서울인쇄대상 대상 수상 영예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에서 금강프린텍은 ‘CJ 사사’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CJ전통과 역사를 통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국적인 문양색인 3색 따지를 사용했다. 입체감과 생명력이 돋보이도록 노력했는데, 특히 책 표면에는 거친 패브릭 원단의 질감을 살리면서 금장을 둘러 전통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광재 대표는 ‘CJ 사사’에 대해 “제일제당하면 누구나 설탕을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겉 표면에는 예전 설탕포장지를 연상시키는 거친 패브릭원단을 사용했다. 거친 패브릭은 질감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생명력과 옛 향수를 자극한다. 또한 금장을 두른 것은 전통성의 표현이다”고 설명했다.

금강프린텍은 이 책을 만들면서 본 작업과 똑같은 샘플을 제작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수차례 보완을 거쳤

다. 역사적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에 걸쳐 샘플링 작업을 했다. 겨우 적합한 소재를 찾았지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았다. 거친 원단은 접착 시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재단 후 울이 풀리기 때문에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했다. 제책 역시 책이 두꺼워도 잘 넘어가도록 실리콘 방식으로 작업했다. 금박 역시 원단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0여개가 넘는 제품을 비교해 채택했다. 금강프린텍은 완벽한 사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샘플링 작업을 진행했고, 꼬박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 대표는 “샘플링 작업을 할 때 1~2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 작업해 고객에게 다양한 인쇄기법과 제책기법을 제안했다. 아무래도 인쇄기법이나 제책기법은 고객사보다 인쇄사가 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우리 회사에서 역으로 제안한 것이 많이 채택됐다. 제책만 하더라도 일반 제책을 비롯해 PUR, 실리콘 제책 등 다양한 방식의 제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얼마전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질은 ...’이라는

한 CF의 카피가 큰 인기를 모았다.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소재를 찾고 샘플링하는 금강프린텍의 노력을 보면서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책은 수많은 시간과 땀이 만들어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금강프린텍 연혁

1997년 5월	금강인쇄 설립
1998년 3월	고모리 T3절 5색 오프셋 인쇄기 도입
2003년 3월	금강프린텍으로 상호 변경
2010년 11월	고모리 4x6 2절 5색 오프셋 인쇄기 도입
2012년 5월	FSC 인증 획득
2012년 10월	(주)금강프린텍으로 법인 전환

주소 | 서울시 중구 마른대로 118-2(오장동)
전화 | 02-2275-5641 팩스 | 02-2275-5643

미니인터뷰 이광재 (주)금강프린텍 대표이사

“명품인쇄사로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할 것”



2014 서울인쇄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한다.
먼저 직원들에게 감사에 말을 전하고 싶다. 영광스런 대상 수상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1985년 군복무를 마치고 가정 형편상 복학을 미루고 우연히 제판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그때의 인연으로 인쇄가 평생 직업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됐다.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품질은 물론이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객과의 신뢰가 쌓이고 품질에 확신을 주면 낮은 단가에 수주하는 확률도 낮아지고,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즉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영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영해오고 있다.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초창기 인쇄업계에 몸담고 있을 때,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했다. 한 번은 24일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철야로 근무했다. 당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직원들에게 휴일과 복지를 보장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격주 토요일 휴무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샌드위치데이도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의 초중고 자녀에게는 교복비용을,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세 확장보다는 내실경영에 중점을 두고, 품질과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시키 나갈 것이다. 명품책을 만드는 회사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각인시키고, “대한민국 명품 인쇄사는 금강프린텍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